



보도시점 2026. 5. 10.(일) 12:00 배포 2026. 5. 10.(일) 10:00

재정경제부,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현황을 점검

-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 개최 -
-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1차 회의 조치 결과 공유 및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5월 8일(금) 우리 석유수입기업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1차 회의(4.8일)에서 언급된 우리 석유수입기업들의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공유하고, 원유 수급, 금융지원 상황 및 추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6.5.8(금) 14:30~15:3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주재), 대외경제심의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

참석 기업들은 원유 확보, 금융 공급 확대 등 정부의 지원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세금납부 유예 및 세제지원,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어려움, 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 하였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석유수입기업들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건의받은 내용은 빠르게 조치하여 석유수입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한국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또한 문 관리관은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고민과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정부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망 구조 재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관계기관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안승현 (ashcrow@korea.kr)

